

KR연구원, 『생명존중, 생명사랑 With you』 캠페인 전개

- 대전 판암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고독사 예방 캠페인 참여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지난달 29일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시 판암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대전역 광장에서 플래카드와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대전지역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두 기관 뿐 만 아니라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동참해 모두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자살 및 고독사의 심각성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병행해 KR연구원은 철도변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과 독거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여 사랑과 온정이 가득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KR연구원은 2011년부터 판암사회복지관과 결연을 맺어 '이웃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특히 철도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1사1촌마을 찾아 가을걷이에 구슬땀

- 구례군 방광마을에서 벼베기, 풀뽑기 등 농촌사랑 실천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지난달 27일 1사1촌 자매마을인 구례군 방광마을(이장 우상철)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벼베기와 배추재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KR봉사단 20여명은 콤팩트 작업이 수월하도록 진입로와 가장자리의 벼를 베는 작업을 시행하고 노인복지시설(예광마을) 김장 지원을 위해 배추 300포기를 직원들이 직접 재배하고 있는 KR배추밭에서는 풀 뽑기 등의 작업을 등을 시행했다.

특히 고령으로 논에서 추수를 할 수 없었던 최정범(76세)씨 등 마을에서 선정한 5가구 3만3천㎡(1만평)의 논을 찾아 추수 마무리에도 일손을 보탰다.

이 본부장은 "1촌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농상생(都農相生)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촌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부는 지난 7월 방광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번기 일손돕기와 친환경 농산물 구입, 가족의 농촌체험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충청본부, 철도변 농촌마을 일손돕기 봉사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 KR봉사단은 지난달 23일 세종시 연동면 명학마을(이장 이종옥)을 찾아 막바지 가을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

본부 KR봉사단 20여명은 일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학마을에서 하루 종일 과수원의 배나무 가지치기와 고구마 캐기, 고추밭 고춧대 제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노 본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촌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든타임의 기적, 공단이 사수한다

- 국토부와 함께 재난대응 훈련 실시 -



안전품질실(실장 석종근)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철도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훈련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실행기반훈련과 토론기반훈련으로 진행했으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총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중앙부처, 전 지자체, 공공기관·단체 등이 참여했다.

지난달 21일 충청본부는 대전역에서 대전 동구청 등 13개 기관 213명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선로 파괴로 KTX열차 탈선, 다수의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발생, 경부선 열차운행 전면 불가 훈련상황을 설정해 대응훈련 및 토론기반훈련을 실시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안전품질실이 재난상황 실현대응역량강화를 위한 재난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KR재난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현장에 불시훈련 상황을 부여해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른 유기적 협조체계를 골든타임 사수훈련을 시행했다.

마지막인 23일에는 공단 재난대책상황실에서 국토부와 공단 재난대책본부, 호남본부 지역부근반이 합동으로 토론기반훈련을 실시하고 각 지역본부별로 불시에 재난상황을 부여하는 CPX(Command Post eExercise)훈련을 소화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훈련과 같이 실제를 가정한 모의훈련을 통해 공단의 재난관리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른 개인별 임무를 숙지하고 반복훈련을 통한 체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골든타임 사수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의 최우선문화 확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안전품질실 박성환 기자)

경영지원실, 직원가족초청 직장문화체험 행사 진행

- 건설현장 견학, 춘천 레일바이크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호응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일과 삶의 균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직원가족 40여명을 초청해 건강한 직장,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직장문화체험 행사를 시행했다.

첫째 날은 어린이들이 이사장실을 방문해 직접 CEO가 돼보는 체험활동을 시행하고 철도 홍보관 관람, 철도 건설현장 견학 등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이해와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둘째 날은 춘천 레일바이크 체험, 인근 수목원 산책, 김유정문학촌 관람 등 자연으로 떠나는 일정으로 직원과 가족간의 동료애를 다지고 추억을 만드는 행사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직장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한 직원과 가족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가족과 소통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고속철도건설 현장 견학이 인상에 남았고 레일바이크를 탈 때 힘들어도 아빠와 함께해서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영지원실은 2011년부터 연 2회 직장문화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애사심과 동료애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직원 자녀들에게는 부모직업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협력을 유도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영지원실 오희진 기자)